

장애인 고용 활성화 · 자립 강화 박차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확충 · 기업 연계 고용 사업 도입 등 제안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기업과 연계한 발달장애인 고용 사업들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주시는 지난 16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들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만족도를 높여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용역은 장애인 일자리 종합계획과 실행과제 수립을 목표로 오는 6월까지 수행된다. 용역은 한산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이인재)이 맡았다.

이날 보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인재 책임연구원은 전주지역 장애인들의 일자리 욕구와 자원, 인프라,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공과 민간 영역의 장애인 일자리 개발을 확대하고 코로나19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일자리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



전주시는 지난 16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안했다.

특히 장애인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해당 시설이 중증장애

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네트워크를 전 반적으로 강화하고, 탄소와 문화 분야

특화일지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발달장애인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기업 연계를 통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방안도 모색됐다.

시는 이 같은 방안들을 더욱 구체화해 6월중 최종보고회를 가진 뒤 4개년 전주 장애인 일자리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교수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인 일자리 다목적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앞서 지난 2월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와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등 일자리 관련 기관 실무자들로 사회연대협의체를 꾸려 운영 중에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및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자리 정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해 나갈 것으로써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가 지난 16일 법령 해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위해 유주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시의회 · 지역사회 발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유주환 변호사 위촉

전주시의회가 지난 16일 법령 해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위해 유주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유 변호사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회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40기로 전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하고, 지난 2015년부터 전북도 행정심판위원을 맡고 있다.

유 신임 고문변호사는 조례의 제·개정 등에 따른 각종 법령 저촉 여부,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 업무 등 앞으로

2년간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위촉식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지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고문 변호사 위촉이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의회 발전으로 이어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2007년부터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입법 기능 강화와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돕고 있다.

/김윤상 기자



도색공사로 전주한옥마을 경관 개선 나선다

전주시는 새봄을 맞아 전주한옥마을 내 경관 개선을 위해 다음 달까지 도색공사를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도색공사 구간은 태조로와 은행로, 경기전길, 어진길, 최명회길, 향교길, 공영·노외주차장 등 차량통행 및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곳이다.

변색이 심한 한옥마을 주요도로 1.2km와 공영주차장 200면에 대해서는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가로등 77곳도 도

색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도색작업을 통해 한옥마을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명품 한옥마을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허갑수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관광거점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한복오감’ 행사 성료

한복패션쇼 · 한복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한복의 아름다움을 흠뻑 느끼게 했던 전주한복오감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전주시는 지난 17일과 18일 전주동현과 경기전 광장에서 한복문화주간 ‘전주한복오감’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한복진흥센터가 주최하고 전주시가 주관한 전주한복오감 행사는 메인행사인 한복패션쇼를 비롯해 ▲랜선 한복입기 ▲한복장터 ▲너를 찍다(한복 사진 인화) ▲한스타일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8일 전주동현에서 펼쳐진 한복패션쇼는 유명 한복 전문가인 주영희, 박순자, 고유정 디자이너가 참여해 품격 높은 한복을 선보였다. 한복패션쇼에서는 역동적인 난타 공연과 여태명 교수의 서예 퍼포먼스도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경기전 광장에서는 한

복장터와 한복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가상의 전주를 배경으로 해서 한복의상 필터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한복 입은 모습을 촬영하는 랜선 한복입기와 한복을 입은 모습을 무료로 인화하는 ‘너를 찍다’ 행사도 인기를 끌었다.

황이슬 ‘전주한복오감’ 총감독은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시민들이 한복을 즐기기에 부족했지만 전주의 한복의 우아함을 잘 보여준 행사였다”면서 “전주 한복을 알리는 데 더욱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한복의 일상화와 생활화를 실현하고 한복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한복 관련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며 “한복문화주간 행사와 함께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전통문화 행사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방역수칙 준수 안심식당 확대

전주시, 연내 170곳 추가 지정... 식문화개선 관련물품 우선 지원

전주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역수칙 실천업소인 안심식당을 늘리기로 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안심식당 170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난해 166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한 시는 연내에 안심식당을 336개소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안심식당 지정기준은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업소 손소독제 비치 등 4가지 생활방역 실천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는 업소에는 안

심식당임을 홍보하는 표시스티커가 부착되며, 개인접시·국자 등 식문화개선 관련물품을 우선 지원한다.

안심식당 희망 음식점은 서약서를 작성해 완산·덕진구청 위생민원팀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더라도 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음식점 방역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등 환경 개선에도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